

일제 귀가 억제의 기본 방침

<기본적인 생각>

- 수도 직하형 지진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조, 협조, 공조에 의한 종합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 직후의 구조, 구급 활동, 소화 활동, 긴급 운송 활동 등의 응급 활동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귀가 곤란자 등의 발생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함부로 이동하지 않는다’ 라를 기본 원칙을 철저히 한다.
- 이 기본 원칙의 실질적인 효능을 위해 이하 구체적인 착수 사항에 따라 각 기업 등(관공청, 단체도 포함. 이하 같음)에 일제 귀가 억제를 촉구한다.
- 이때, 안부 확인 및 재해 관련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방안을 관민일체가 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기업 등의 일제 귀가 억제가 실효성을 띠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 아동,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방안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방안>

(직원 등의 대기 및 비축)

- 기업 등은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에 의해 수도권 대부분의 교통 기관의 운행이 정지되어 당분간 복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우, 사업장 건물 및 사업장 주변의 재해 피해 현황을 확인한 후, 직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 등을 일정 기간 사업장 내에 머무르게 하도록 노력한다.
- 기업 등은 직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3일치 필요한 물, 식료품, 담요 등의 물자를 비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규모 집객 시설 등에 있어서의 이용자 보호)

-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시에는 대규모 집객 시설이나 터미널 역 등에서 다수의 귀가 곤란자 등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과 연합하여 사업자 등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대기

및 유도를 해야 한다.

(직원 등을 대기시키기 위한 환경 정비)

· 기업 등은 직원 등을 일정 기간 사업장 내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건물의 내진화, 가구류의 넘어짐·낙하·이동 방지, 유리 파편 방지 등, 직원 등이 사업장 내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환경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 연속성 계획 등에 위치를 알린다)

· 기업 등은 사업 연속성 계획(BCP) 등의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시 직원 등의 대기 및 귀가 방침을 사전에 미리 결정하여 직원들에게 주지시킨다.

(안부 확인)

· 기업 등은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시에는 전화가 폭주할 것을 예측하여 사업장과 직원간의 안부 확인 방법을 사전에 미리 결정함과 동시에, 직원과 그 가족간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재해용 전언 게시판 및 재해용 전언 다이얼 171,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 복수의 안부 확인 수단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해당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지해 준다.

(훈련)

· 기업 등은 수도 직하형 지진을 예측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에 응한 대책을 점검한다.

(기타)

· 기업 등은 지자체 및 자주 방재조직 등과 수도 직하형 지진 발생시 대응을 사전에 정해 두는 등, 평소부터 협력에 힘쓴다.